

## 차지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 모든것은 연생연멸 한다

연생연멸(緣生緣滅)의 법칙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인간 따라 생겨났다가 인간 따라 소멸한다는 뜻이다.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복제 인간 문제로 시끄럽기 때문이다.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은 양성 생식의 인간을 단성생식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기에 진화적 피보에 불과하다고. 인간이 유전학적으로 단성생식에서 양성생식으로 진화한 이면에는 인간의 생존과 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어긴다면 질병을 비롯한 생명의 질서를 파괴한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면서 복제 알 클리브를 비롯해 이제까지 시험관을 통해 세상에 탄생했던 복제 동물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혹자는 복제인간이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어떤 사람이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간을 복제하여 그의 장기를 활용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인간

전하고 있다. 아난과 부처님은 다름과 같은 단편을 한다. ‘부처님, 소멸이다, 소멸이다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소멸하기에 소멸한다고 말할 수 있나?’. “물집은 무상(無常)이다. 원인이 있어서 모은 것은 생겨났으며, 조건(緣)이 갖추어져 생겨난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쇠퇴하는 것이며, 탐욕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소멸하는 것이기에 멸할(滅)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단편은 계속 진행되어 감각, 표상, 의지, 본능력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태로 설명되고 있다. 즉 인간과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 즉 5온이란 것은 모두 원인과 조건이 구비되면 생겼다가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없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항상 변하고 있다는 사실무상을 직시하고 이들에 대한 탐욕으로 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잡아함경〉: 11경과 3·28경에서 또 태어나고 소멸하는 것이 인연에 따르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인간 역시 항상 변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인간 복제를 연생연멸의 논리에 해석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우선 원인은 인간들의 욕망이다 말할 수 있다. 조건은 과학자 내지 야기

## 인간복제 ‘연생연멸’ 시각서 봐야

## 법제도 갖추면 큰 문제 없을수도

의 생명이 다른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분명하다. 이러한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이면에 시간간격이 빠져있다.

똑같은 인간의 복제는 현대의 과학기술로서 불가능하다. 현재 따지고 있는 인간 복제란 체세포 나 그 핵을 이용한 단성생식으로 인간을 탄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의 자궁을 거치지 않을 수 없으며, 영아의 상태로 태어나 다른 아이들과 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복제 인간이 철사 의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선 시간이 필요하다. 동일한 열매체를 지니고 있는 있지만 성장과정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외모나 사상은 달라질 수 있다.

필자 역시 이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사색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불교적 해답은 무엇이라 제시할 수 있는가. 결국 불교는 연생연멸의 이면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란 생각이다. 많은 견해 중의 한 견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한 해법을 찾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필자의 소견도 밝히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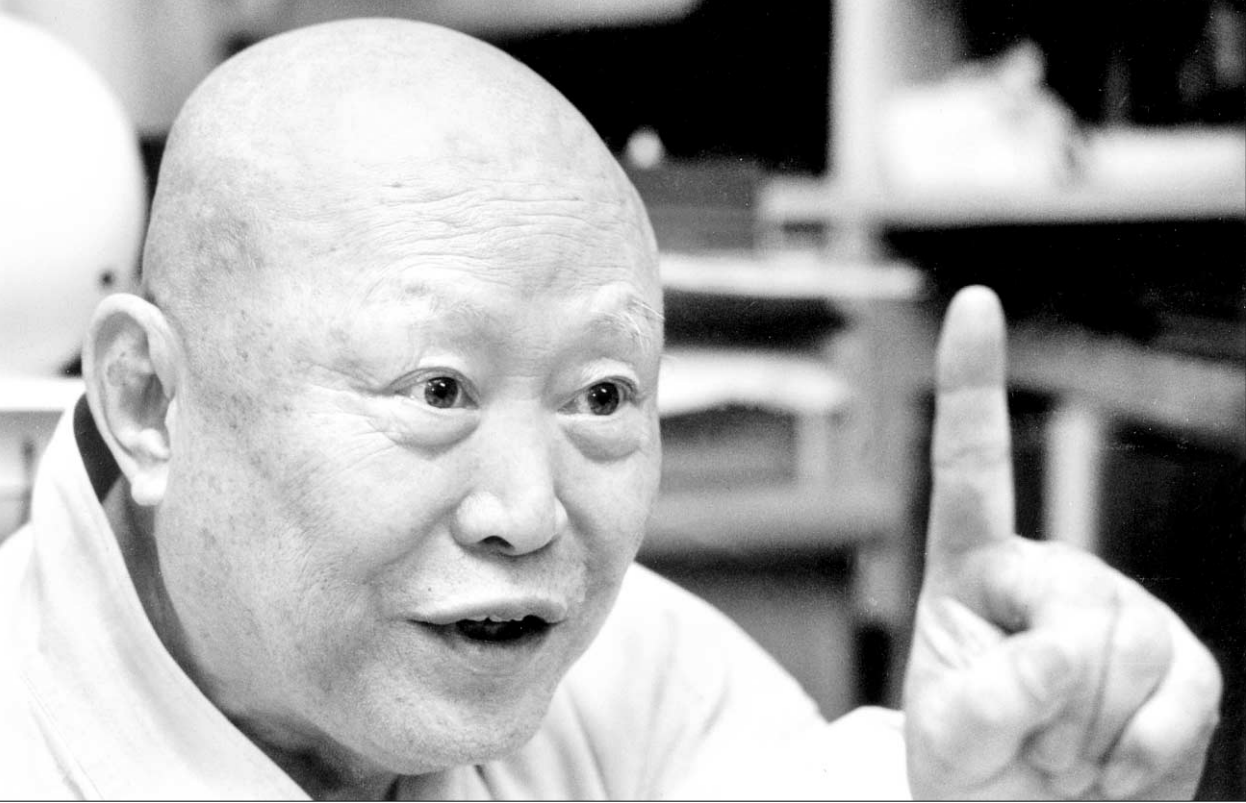
남전대장경 상응부에는 부처님께서 기수급고 독원에 계실 때 아난존자와 나는 일단의 대화를

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현대문명의 과학기술 수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발전해 있다는 것이다. 원인과 조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기에 이미 복제 인간의 탄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제 인간 복제의 기술적 차원을 벗어나 가치와 윤리의 문제로 전이되어 있다. 인간들의 이상과 윤리의식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자폭탄이 악용될 경우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지만 선용되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과학기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것은 유신론적 입장에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창조는 신의 고유 권능으로 간주해 왔으며, 이러한 권능에 대한 도전은 불가는 했다. 그러나 현대과학기술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신의 절대 권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다. 한편 사람이 신의 권위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진정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신이란 관념적 우상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법적

인 제도를 구비하게 된다면 세상이 난리치듯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이 인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은 나쁘지만 말이다.

〈부처 상입는설위권 · 불교학 박사〉



◇천운스님은 불교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교육’이란 단어에만 ‘불성개발’이라고 강조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세상이 혼탁해지는 것도 사람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 되고, 사회에 해만 끼치게 됩니다.

### 한사람 한사람 수행이 세상 맑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교육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 중생에게 법법을 설하신 것도 다름 아닌 교육입니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을 일치시키고 세상을 화해시킬 수 있는 최우한 힘입니다. 교육을 단순한 인문부를 파멸시킬 수 있지만 선용되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과학기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 기자가 본 천운스님

14살 소년은 한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완고한 한 학자였던 할아버지의 고집에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다.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일념에 결국 집을 뛰쳐나왔고, 길에서 만난 비구니 스님을 따라 내장사로 가게 됐다. 거기에서 한영스님을 만났고 그 밑에서 불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지금 초남지역 포교의 ‘대부’가 됐다.

광주에서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정광중고등학교 이 사장에 전담경찰불교회장, 광주교도소화위원회 회장, 전남도청불자회장, 우산북자인 편장 등 지역사회에서 많은 직함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직함같은 ‘할아버지’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지 40여년이나 됐다. 현재 향림사에 살고 있는 50여명의 아이들에게 천운스님은 엄한 선생님이자, 개그를 할 때 꾸민 여지없이 호호리를

의 가치를 알게 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 인성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조계종 초대 총무원총장을 지낸 이종욱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공부를 하겠다고 중국대에 다니게 해달라 고 부탁을 했어요. 종욱스님은 “내 상좌도 아니고 네가 세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불가에서 어떻게 살고, 또 지금 교육이 그렇게 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살

다’고 하시고는 3년간 그 스님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하던 말이죠. 그래서 중국대에 입학시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 도중 그 스님이 졸업하기 전에 6.25전쟁이 일어났고, 종욱스님은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그 스님은 공산당 청년단원에 입단해 종욱스님 을 잡겠다고 다녔어요. 전쟁이 끝나고 종욱스님 제자들이 그 스님을 총무원총장에 접견했었습니다. 그 리고는 종욱스님에게 그 스님을 어떻게 처분했으면

라보느냐’며 오히려 직원을 호통 치시곤 합니다. 그래서 큰스님 건강이 제일 걱정돼요.”

8년째 천운스님을 모시고 있는 향림사 총무원장 김호정씨는 이제 만류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건강하시기를만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천운스님은 언제 잡자리에 들든 새벽 3시 반이

만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과 독경, 참선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말보다는 실천이 늘 앞서는 수행자의 모습 그대로다. 그러면서도 포교 역시 불췌가라면 서러위를 정도 열심이다. 불교 불모지인 호남지역에 이만큼 불교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71년부터 30년 넘는 세월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 천운스님의 노력 덕분이다.

## 청빈·고요한 생활에서 지혜 나와 자기욕망 억제해야 남 배려 가능

#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교육이 세상을 바꾸죠”



지상 백고좌

## 천운스님

(광주 향림사 조실)

좋았느냐고 여쭈었어요. 그런데 종욱스님은 스님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산술해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셨고, 제자들이 산술비용을 올리자 “그 녀석이 승려생활을 그 만큼 했으니 거기에 맞추어 돈을 가지고 오면 너희를 마음대로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사람을 아끼는 스님의 뜻을 크게 깨닫고 종욱스님을 더욱 존경하게 됐지요. 교육은 배운 것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에요. 종욱 스님의 일화는 우리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우쳐주시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교육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윤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윤리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5계가 필요합니다. 살생이나



◇천운스님은 40년 넘게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있다. 아이들에게 천운스님은 엄한 아버지이자 자상한 할아버지다.

천운스님은 1930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1947년 지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58년 지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송광사, 용암사, 도갑사 등지에서 안거를 성만하고 구례 회암사, 해남 대흥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면 것은 71년부터 30년 넘는 세월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 천운스님의 노력 덕분이다.

을행, 거짓말은 그 자체도 나쁘지만 그런 행위로 인해 다른 나쁜 행위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돈을 번 사람은 또 그런 기회만 찾게 돼요.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 자꾸만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청빈하게 살아온 옛 스님네들의 정신이 오늘날에는 많이 희석됐지만 모름지기 사람은 ‘고요함’에 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플렉스는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욕망을 누를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중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나 수행이나 모두 인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매가 썩어야 쓸어내는 아무리 더러운 거울이라도 인내심을 갖고 계속 닦아보면 맑게 되지요. 세상의 이치도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혼탁하다 하더라도 자신을 닦아 나가다보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사람의 수행이 모여 결국엔 세상을 맑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셋째는 교육받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행이 일치해야 해요.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이 바르지 않는데, 제자가 바

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빛나간 아이들을 나무랄 줄만 알았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반성은 하지 않습니다.

흔리 불자들의 신행이 기복적이다 했다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님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왜 문제가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6년간 고생을 하셔서 얻은 것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았으면서도 전혀 부처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받기만 다 해서 주었는데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악습(惡習) 때문이 그래요. 지금은 좀 나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젊은 교리반 가르치지, 수행은 가르치지 않아요.

잘못 배우는 것도 문제예요. 부처님 법 알리려고 부처노릇 하려는 데 못했니까. 의식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사물이 동물과 다름 것이 없어요. 항상 의심해야만 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살고 있는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지 의심하는데 거기에 명예욕이나 재물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다만 내가 부처가 아니라면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조주 스님께서 “개유불성(皆有佛性)”이라고 하셨어요.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부처가 아니라면 사람에게 부처는 없지요.

부처 노릇 하려면 욕망을 떨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몫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얻으려 하는 것은 도둑질보다 더 나쁜 것이예요.

### 철저하게 계 지키는 일 중요

어떤 이들은 계율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더라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화가 전에 계율의 원리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계율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할 해야 할과 하지 않아 할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지만 부처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것이예요. 계율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줄입니다. 모든 생명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나 수행이나 모두 인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매가 썩어야 쓸어내는 아무리 더러운 거울이라도 인내심을 갖고 계속 닦아보면 맑게 되지요. 세상의 이치도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혼탁하다 하더라도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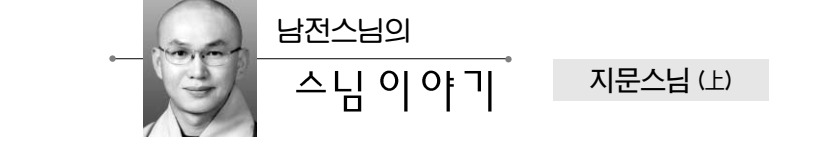
을 닦아 나가다보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사람의 수행이 모여 결국엔 세상을 맑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셋째는 교육받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행이 일치해야 해요.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이 바르지 않는데, 제자가 바

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빛나간 아이들을 나무랄 줄만 알았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반성은 하지 않습니다.

흔리 불자들의 신행이 기복적이다 했다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님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왜 문제가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6년간 고생을 하셔서 얻은 것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았으면서도 전혀 부처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받기만 다 해서 주었는데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악습(惡習) 때문이 그래요. 지금은 좀 나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젊은 교리반 가르치지, 수행은 가르치지 않아요. 잘못 배우는 것도 문제예요. 부처님 법 알리려고 부처노릇 하려는 데 못했니까. 의식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사물이 동물과 다름 것이 없어요. 항상 의심해야만 제

정리=한명영 기자 mmyar@buddhania.com 사진=박재환 기자 jpkar@buddhan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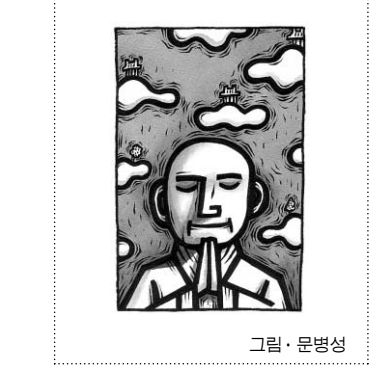
남전스님의

스님 이야기

지문스님 (나)

흔히 집집에서 불사(佛事)라고 하면 탑을 세우고 법당 짓는 일이 전부인 줄 안다. 그러나 불사라는 말의 의미는 훨씬 크고 넓다. 사연에는 부처님의 능사(能事)인 교화(教化)를 지칭하는 말로 여러 가지 일에 의탁(依託)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사는 절 짓는 일 이외에도 점안(點眼), 낙성(落成), 수계(受戒)등의 갖가지 법회와 사경(寫經), 제사등의 의식 진행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그래서 불사가 될 자격은 많은 부처님의 법(法)에 담겨 모든 일이 진행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불사가 되는 것인데 자꾸 세우고 짓는 일만 중요시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 불교의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부작용과 정신문학의 상심로 해마다 심각하다. 이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규모나 시설에서 현대화의 의미를 찾는다면 제대로 된 불교의 모습을



그림·문병성

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교의 현대화가 아닌 현대사회를 불교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불사가 아닐까? 비록 법과 법안이 낡고 비효율 하더라도 언제나 부처님 법대로 보시로 자부심을 갖게 했고, 부대 내에서는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등 그야말로 다목적의 효과를 본 것이다. 다음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던 불사들을 이렇게 이루어낸 스님에게 불사제일이란 별칭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스님은 아는 불자들이 우리 도반들이 스님 이름 앞에 불사제일(佛事第一)이란 칭호도 붙여 놓았다. 유마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심대제자지체제일사리를, 신통제일, 무타제일, 기성, 제일, 제일이다. 스님은 통구(通)를 겸하고 현대 하동 쌍계사에서 교무스님의 소임을 보고 있다. 지문 스님이 바로 그 본연이다. 스님에게 불사제일이란 별칭이 붙은 것은 주로 군승시절의 활약이 때문이다. 스님은 1992년 경에 강원도 인제 원통 지역의 12사년에 오승으로 있다. 지비를 실천하다보면 지혜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삶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정리=한명영 기자 mmyar@buddhania.com 사진=박재환 기자 jpkar@buddhania.com

동안 병사들이 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에 법당을 신축하고 사단 본부의 법당을 교각형 정자형에서 부대 바깥에 2층 법당을 마련했는데, 불사제일이란 그런 외형적 활약에서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고 이루어내는 내용이 훌륭해서다. 스님은 새로운 법당에 우선 유치원을 개설했다. 그 당시의 유치원 개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군(軍)법당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사단도 많지 않은 지역이었다 못 인되는 군 병사들로 어떻게 유치원을 유지할까 하는 주변의 걱정에도 스님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결국 그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유치원을 만들어 냈다. 지역 불교 포교에 큰 영향을 끼친 셈이다.

스님은 그렇듯 어렵고 힘든 불사들을 정말 여법(依法)하게 이루어냈다.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부작용과 정신문학의 상심로 해마다 심각하다. 이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규모나 시설에서 현대화의 의미를 찾는다면 제대로 된 불교의 모습을

### 군승예 약조건 속 수많은 불사

### 복지·외국어 관심 ‘끝없는 공부’

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의 성지순례 신행포교와 연계하여 인근 지역의 봉정암이나 낙산사 같은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오는 불자들을 군 법당으로 인도하여 많은 도움을 이끌어냈다. 이것은 동행한 불자들에게 성지순례의 문화공간을 열어준 군 불교의 현상을 이해하고 군 불자들을 위한 애절한 정성을 보였다는 보람까지 주었으며, 군 불자들에게 많은 민간인 신도들의 방문과 보시로 자부심을 갖게 했고, 부대 내에서는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등 그야말로 다목적의 효과를 본 것이다. 다음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던 불사들을 이렇게 이루어낸 스님에게 불사제일이란 별칭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스님은 아는 불자들이 우리 도반들이 스님 이름 앞에 불사제일(佛事第一)이란 칭호도 붙여 놓았다. 유마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심대제자지체제일사리를, 신통제일, 무타제일, 기성, 제일, 제일이다. 스님은 통구(通)를 겸하고 현대 하동 쌍계사에서 교무스님의 소임을 보고 있다. 지문 스님이 바로 그 본연이다. 스님에게 불사제일이란 별칭이 붙은 것은 주로 군승시절의 활약이 때문이다. 스님은 1992년 경에 강원도 인제 원통 지역의 12사년에 오승으로 있다. 지비를 실천하다보면 지혜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삶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정리=한명영 기자 mmyar@buddhania.com 사진=박재환 기자 jpkar@buddhania.com

정리=한명영 기자 mmyar@buddhania.com 사진=박재환 기자 jpkar@buddhania.com